불자 세상보기

붓다의 자비와 착한 사마리아인



방영준
성신여대 명예교수

한국 사회의 도덕적 위기에 대한 개탄의 소리는 귀에 면역이 될 정도로 요란하다. 너나 할 것 없이 도덕성 회복의 목청을 돋우고 있으나 찢어진 거미줄을 손가락으로 수리하려는 짓이 아닌가 하는 절망감이 들 때도 있다. 그러나 긴 가뭄에 소나기처럼 이 절망감을 녹여 주는 아름다운 의인(義人)들의 이야기, '착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우리의 가슴을 적신다.

착한 사마리아인은 기독교 복음서에서 유래됐다. 강도를 만난 한 유대인이 부상을 당한 채 길 위에 쓰러져 있었지만, 유대교 제사장 등은 모른 척하고 지나갔다. 이때 유대인이 천시하는 한 사마리아인이 그를 구해주었다는 이야기에서 출발한다.

오늘의 한국 사회에서 의인, 착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큰 관심은 우리 사회의 비도덕성에 대한 아픔에서 나온 것이리라. 얼마 전 경부고속도로 관광버스 화재 참사 당시, 부상자 4명을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병원으로 옮긴 동해 묵호고 A교사가 화제가 되었다.

또한 어느 대기업 계열 공익재단이 그를 '의인상' 수상자로 선정했지만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며 수상과 상금 5000만원을 한사코 거절했다. 가슴이 뭉클하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된다. A교사는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보지 않는 우리 사회에 대해 큰 화두를 던지는 것이리라.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사회는 '바르고 행복한 사회'이다. 이러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기초가 바로 윤리 도덕이다. 이러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수레바퀴가 함께 굴러가야 한다.

첫째는 개인의 도덕성에 기초한 개인 윤리적 차원이고, 둘째는 사회 구조와 제도에 관심을 두는 사회 윤리적 차원이다. 근래 '의인에 대한 처우'나 '착한 사마리아인 법'에 대한 논의들은 사회 윤리적 차원의 논의들이다. 이러한 접근은 현대사회가 지닌 구조와 기능의 복잡성으로 인해 사회의 도덕성을 개인의 도덕성에만 의지할 수 없다는 데서 나온 것이다.

서교동 아파트 화재 당시 초인종으로 주민을 깨우고 자신은 숨을 거둔 故 안치범의 고귀한 행동은 우리를 아프게 만든다. 현대사회에서 의인이 되기가 쉽지 않다. 의인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 형태의 위험과 피해를 감수해야 할 용기와 정의감을 필요로 한다. 이에 의인들이 입은 각종 피해와 손실을 보상하여 줄 수 있는 효율성과 수월성을 갖춘 법적, 제도적 장치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의인 선정에 대한 절차의 까다로움, 피해 보상에 대한 규정의 비체계화 등으로 인해 많은 혼선과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초인종 의인 고 안치범 씨의 경우도 의인 선정을 하기 위해 가족이 그 증거자료를 만들어 제출해야 한다고 하니 그 가족들은 얼마나 당혹스러울까, 참으로 민망스럽다.

의인에 대한 처우 문제와 함께 '착한 사마리안 법'에 논쟁도 일어나고 있다. 이 법은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을 구조해 주어도 자기가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조해 주지 않은 사람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법이다. 60대 운전사가 운전 중 심장마비로 졸도했는데 승객은 신고도 안 해주고 공항으로 떠나 결국 그 운전사가 사망한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다. 물론 '착한 사마리아인 법'과 유사한 내용의 조항을 가진 법은 형법을 비롯해 산재해 있다.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는 독립된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도덕적 의무와 행위를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개인의 인권을 훼손하고 남용될 가능성은 없는가 하는 비판도 높다. 의인과 착한 사마리아인 법에 대한 논의는 단순히 당위적이고 규범적인 틀에서만 접근해서는 안 되며, 매우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인간은 이기적이면서 착한 존재이고, 착하면서 이기적인 매우 복합적인 존재이기 때문이다.

의인과 착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불교의 역할은 무엇인가? 붓다의 연기론과 자비 정신을 윤리이론으로 정립한 프랑스 철학자 레비나스(Emmauel Levinas)의 '타자 윤리'가 생각난다. 그는 다른 존재 덕분에 '나'라는 존재가 성립한다고 보면서 타자의 존재 자체를 '윤리'라고 주장한다. 그의 타자 개념은 자기중심적으로 사물을 바라보는 현대인에게 자아 중심이 아닌 타자 중심으로 보는 시선을 강조한다.

연기와 자비의 강물로 이 메마른 땅에 생기가 가득하게 하는 것이 바로 붓다의 길일 것이다.

특별기고

"본래 진면목 있는 그대로 바로 보자"



법진 스님
보타락가사 회주

중국 당나라 때 도림선사라는 스님이 있었다. 그는 날만 쾌청하면 큰 나무 가지에 올라앉아 선정에 들곤 했다. 어느날 학식 높은 백낙천(白居易)이 도가 높다는 도림스님을 찾아뵙고 시험하고자 했다. 백낙천이 도림선사를 찾아오니 때마침 도림선사가 나무 가지서 꾸벅꾸벅 졸고 있었다.

"스님 거기서 조시면 위험합니다. 어서 내려오십시오." 하고 외쳤다. 도림선사는 백낙천 을 넌지시 바라보다가 "자네가 서 있는 땅위보다 내가 앉아있는 이 나무 가지가 더 안전하네." 라고 하였다. 백낙천은 무언가 알 수 없는 것이 번개처럼 머릿속을 스치는 것 같았다. 자신도 모르게 도림선사에게 삼배를 올렸다. "어찌 이 어려운 걸음을 하였는고?"하고 선사가 물으니 "도의 대의를 물으려 왔습니다. 어떤 것이 도입니까?"라고 답했다.

"불사선불사악하라(不思善不思惡)이라. 착한 것도 생각지 말고 악한 것도 생각지 말라."고 선사는 답했다. 백낙천이 "그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소리 아닙니까?"하고 재차 질문하니, "삼척동자도 알지만 구십 노인도 실천하기는 어려우니라."라고 선사는 답했다.

여기서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은 착한 것도 생각지 말고, 악한 것도 생각지 말라는 것이다. 악한 것도 생각지 말라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선도 생각지 말라는 것은 얼핏 이해가 가지 않을 수 있다. '불사선불사악'이란 의미는 일념이 미처 생기지 않을 때 본래의 면목을 보라는 것이다. 즉 일체에 집착하는 마음을 버리라는 것이다.

얼마 전에 내가 주지로 있는 보타락가사서 템플스테이를 진행한 적이 있다. 사찰 입구에 보니 붉은 꽃이 만발해야 할 백일홍 나무 들이 칡넝쿨에 덮여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었다. 살아 있는 것이 다행이라 생각이 들 정도로 가지 몇 개는 이미 고사 상태였다. 내일 새벽에 예불을 마치고 백일홍 나무에 뒤덮인 칡을 거둬 주어야 겠다고 생각했다.

목과 가지를 감아 조이며 엉켜있는 칡넝쿨을 다 끊어버릴 생각과 백일홍이 얼마나 시원할까 생각하니 별 것 아닌 일에 잠을 설쳤다. 이윽고 새벽 예불을 마치고 낫으로 사정없이 칡넝쿨을 걷어냈다. 그런데 잠시 쉬고 있을때 거두어낸 칡넝쿨을 가만히 응시하니 슬프게 이야기 하는 듯 느껴졌다.

"스님, 어찌 백일홍 고운 줄은 아시고 칡이 있어 쑥대가 자라지 못하는 것을 왜 모르십니까? 또한 칡이 갈근이라 해서 만병통치약이며 꽃도 백일홍 꽃보다도 보라색으로 더 아름답고 향기는 주변의 불순한 향기를 정화합니다. 제악막작 중선봉행은 백일홍에만 국한 된 말씀은 아닐 것입니다. 백일홍한테 베푸시는 감정을 우리에게도 나누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라고 말이다. 칡을 걷어내니 바닥에는 쑥들이 칡의 말처럼 엉겨 붙어서 나오려고 안간 힘을 쓰고 있었으나 칡넝쿨에 눌려 피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쑥도 한마디 하는 것 같았다. "스님, 어찌 백일홍 고운 줄은 아시고 쑥이 있어 잡초가 자라지 못하는 것을 모르시나요? 또한 쑥이 떡과 음식을 해 먹는 데는 최고 이며, 인간들의 수종 냉증을 다스리는 줄은 왜 모르십니까?" 라고 말이다. 평등한 자비심에는 나와 남이 없고 큰 거울은 차별을 두지 않고 그대로 비춘다. 하지만 중생의 마음은 차별이 본성이 돼 버렸기 때문에 자타의 집착서 벗어나기 어렵다. 모두 다 자신들의 입장이 있다. 또한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다. 명이 있으면 암이 있듯이 우리 사회에 백일홍만 중히 여기지 말고 칡도 쑥같은 이들도 자비중생으로 껴안자. 그러다 보면 나의 마음도 맑아지고 깨끗해 진다. 칡도 쑥도 잡초도 모두 유정물이다. 백일홍도 칡도 쑥도 그냥 본래 면목 그대로 바라보자.

社說

불교호스피스, 사회선도 기대한다

불교호스피스협회와 병원전법단 교육이 조계종 포교원 전문인력 자격제도를 통해 인증될 예정이다. 2017년 8월 연명의료법 시행을 앞두고 불교계 내부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세간의 지적에 따른 성과다. 의료포교 주도권을 두고 알력이 있던 두 단체가 서로를 존중하며 발전적인 합의를 한 데 박수를 보낸다.

연명의료법은 기존 의료진만이 가능했던 의료영역을 넘어 전인적인 접근이 이뤄져 사회복지사와 성직자 등 폭 넓은 분야서 전문인력이 참여한다. 하지만 성직자들의 영적돌봄에 대한 교육안은 마련되지 않아 불교·개신교·가톨릭 3대 종교가 꾸준히 문제제기를 해왔다. 보건복지부 연명의료법 민관추진단 위원들에 따르면 정부도 이런 종교계 목소리를 인식하고 있다. 그렇기에 종교계가 각각 실시하는 호스피스교육체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불교계는 가톨릭과 같이 중앙주도하에 호스피스 체계가 잡히지 않았다. 개별적으로 활동하는 활동가들이 점차 늘어나고 단체 등이 조직되며 세를 키웠다. 호스피스에 대한 불교계 관심이 그간 높지 않았던 이유이기도 하다.

다행히 조계종 포교원이 호스피스분야서 활동하는 단체들을 관리하고, 사회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나섰다. 종법령 제정을 통해 자격증을 배부하고, 정부 측에 단일된 입장을 정리해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오랫동안 산중불교를 지향할 수밖에 없었던 한국불교는 노동·인권·보건 등 사회문제를 대하는 데 이웃종교보다 늘 한 발 늦었다. 이제는 사회문제를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지혜를 모아 대처할 때다.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낸 불교호스피스가 사회를 선도하는 선례로 남아 갈 길 바쁜 한국불교계의 이정표가 되길 기대한다.

청소년교화協 50주년에 부쳐

'50'이라는 숫자를 인생에 놓고 본다면, 완숙해진 중년이자 이제는 천명을 아는(知天命)의 나이다. 하물며 한 단체가 꾸준한 활동을 통해 반백년의 시간을 맞는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니다.

(사)청소년교화연합회가 창립 50주년을 맞았다고 한다. 청소년교화연합회는 불교계 청소년포교의 산실로 1966년 4월 어린이·청소년 교화를 위해 석주 스님, 운문 스님, 안병호 거사, 황해진 변호사 등이 뜻을 모아 세운 '소년교화연합회'로 출발했다.

1970년대에는 일반학교 불교학생회와 전국연합회 조직을 활성화하는 등 명실상부한 불교청소년단체로 자리매김했다. 현재의 모습을 갖게 된 것은 현 총재인 현성 스님의 역할이 크다. 스님은 연합회를 1989년 사단법인으로 등록하는 등 체계를 완비했다.

현성 스님은 연합회가 50년의 활동을 이어올 수 있는 것은 '선지식들의 원력'이 있기에 가능했다고 했다. 前 총재 석주 스님과 은사 청담 스님이 "청소년이 나라의 미래이기 때문에 바르게 클 수 있게 도와야 한다"고 항상 당부하셨다는 것이다. 현재 불교계의 어린이·청소년 포교 상황을 보면 선지식의 원력에 대한 죄송한 마음만 들게 된다. 10~20대 불자는 더 이상 사찰을 찾지 않고, 불교에 대한 관심은 줄어들고 있다. 이로 인해 영·유아-어린이·청소년-대학생-청년으로 이어지는 계층 포교 벨트는 사실상 붕괴됐다. 종교적으로 미래 신도 확장성은 불교가 가장 예후가 나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전법과 포교의 원력이 필요하다. 그래야 불교의 미래가 보인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 혜원 편집인 : 혜도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전북지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주지국 : (054)634-3429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하기책자 5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命 (명)
글쓴이 : 혜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 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20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전생의 빚을 소멸시켜 자신의 운명을 바뀌게 하는"

생전예수재기도의 중요성과 그 성취효과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생전예수재는 "왜" 필히 지내야만 하는가?
② 생전예수재 신청 및 집에서 기도하는 방법
③ 생전예수재 기도후 일어난 영험사례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 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768-8413

지리산 다슬기 眞 골드
지리산과 덕유산 일대의 자연다슬기와 국내산 약재로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선조들의 지혜가 듬뿍 담겨 있는 지리산 다슬기 진 골드로
생활의 활력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신장과 시력보호에 탁월한 효과를 지닌 다슬기를 주 재료로 하여 맑은 지리산 계곡물과 함께 각종 약재를 함께 넣어서 정성껏 달였습니다. 장시간 책을 많이 보시는 분들과 수행에 지친 분들께 원기를 복돋아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선물 입니다.

제품문의 : 02)879-2007
입금안내 : 농협 1282-17-003433 (주)한메소프트
입금금액 : 125,000원 (무료배송)